

# 인 생 과 예 술 에 대 한 빛 나 는 철 학 적 미 소 의 수 유 자

조 광 제

한세상 사는 일이 결코 녹녹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남아 있는 세월은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짧게 느껴진다. 그렇게 존재의 허기가 몸을 감돌면 한 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던가. 이래저래 그를 만나 안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나는 이종관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보소! 오늘따라 술이 고फ는데 적당하니 시간이 남아들면 한 잔 하는 게 어떨소?” 하고서 특별히 술집에 둘이 마주 앉아 서로를 건넌 적이 없다. 그런데도 여기 〈출판저널〉에서 이종관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면서 그가 쭉스러운 목소리로 부탁 전화를 해왔을 때, 나로서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랬다. 어릴 때에는 그가 다니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이영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수업 시간이나 뒤편에서 그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뒤 그는 현상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

버렸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그가 독일에서 돌아온 뒤 춘천교육대학에 교수로서 봉직하고 뒤이어 성균관대학으로 옮겨 열심히 교수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한국현상학회의 월례회나 신춘 세미나 또는 특별 강연회 등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한국현상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달리 ‘끈적끈적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회합이 있는 뒤 뒤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뒤편이 자리는 늘 흥겹고 시끌벅적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는 한국현상학계의 ‘원로이신 한전숙 선생님이나 이영호 선생님의 평소 탈권위적인 품성이 크게 힘을 발휘했다.

젊은 학자들이 기탄없이 제 모습을 내보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술좌석을 좋아하시는 이영호 선생님의 호쾌하시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좌중을 압

도하는가 하면, 어느새 전 한국현상학회 회장을 하신 박순영 선생님이나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손동현 선생님의 반박이 좌중의 기운을 획 풀어내면서 한정선, 이종관, 조광제 등의 입심이 제법 폼을 잡으면서 설왕설래 분위기의 안주 역할을 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들보다 더 젊은 신진 학자들의 얼굴에 주기가 오른다. 그런 절차 아닌 절차가 암암리에 전개되면서 술이 몇 순배 돌다보면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오고 갈 사람은 가고 이차 또는 삼차의 술판이 이어진다. 그럴 때 나와 이종관 선생은 마지막까지 남는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노라면 벌써 새벽 두세시가 되곤 했다. 그때 서로 집에 돌아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갈 사람은 갈 이유가 있기에 가고, 남는 사람은 남는 이유가 있기에 남는다. 가야 할 이유보다 남아야 할 이유가 우세하면 남고, 남아야 할 이유보다 가야 할 이유가 우세하면 가는 법이다. 이종관 선생과 나는 왜 남았을까? 함께 남아 술을 마시며 이것저것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떠들면서 서로를 주고받는 일이 좋기 때문이다.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술한 책을 읽었고 그것들의 내용을 몸으로 식여 체득하고 있는 한 인간을 만나 그를 배우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말이다.

이종관 선생은 도대체 매사에 넘치는 법이 없다. 수려한 그의 용모와 옷맵시에는 항상 미학적인 감성이 짙게 배어 드러난다. 게다가 흰칠한 몸매에다 영락없이 메를로퐁티의 생김새를 빼어담은 그의 서구적 마스크를 곁들여 보노라면 어느 누구라도 확 트이는 시원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가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이종관 선생은 그의 품새에서 이미 그윽한 인격자임에 틀림없다고 여기게 되는 이득을 한몫 보고 들어가는 행운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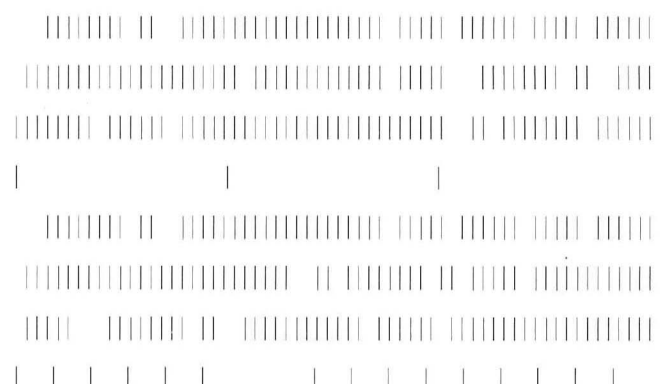
하지만 나는 그런 이종관 선생의 이득이 본인으로서 는 그다지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긴 해도 그의 내면에는 언필칭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그의 역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예술의 유혹’이란 것이 그저 말로만 되는 법이던가. 그러한 유혹에 흠뻑 몸을 드리우지 않으면 안 될진대, 철학을 한다는 인간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이종관 선생은 그 문턱에서 그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지 싶다. 하지만, 인생과 예술에 대한 이

러한 그의 철학적인 미소가 빛나는 까닭은 평생을 통해 갈고 닦은 탁월한 그의 직관적인 논리가 그 아래에 서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종관 선생이 좋다. 연배로 치면 나보다 한두 살 아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좋다. 그저 친구 같기 때문이다. 나이만 가지고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학회에서 토론이 벌어질라치면 항상 정곡을 찔러 토론을 활기차게 하는 그의 모습이 좋고,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 속에서 가상적으로 솟아오르는 무의미의 힘을 애써 억누르고 철학과 예술의 정신을 한데 묶어 현실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려는 그의 태도가 좋다. 초월적인 세계에 기대지 않는 듯하고 질게 배어나는 사람 냄새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의 심성이 좋다. 여인들이 아니고서는 품길 수 없는 신비한 삶의 향취를 말로만이기는 하지만 깊게 호흡하는 듯한 남자인 그가 좋다. 숨넘어갈 듯 찬란한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름답다고 여길 때, 나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칸트는 이야기했다. 나는 이종관 선생을 그저 보고 있기만 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별나서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나로서는 한국현상학회와 상관 없이 이종관 선생과 진하게 술을 한잔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한 불찰은 순전히 나에게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듯 보이지만, 그래서 심심찮게 전화를 걸어 한잔 하자고 채근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못하는 나의 비정한 심성에다 나의 철저한 게으름이 더해 그런 것이다. 이 글을 기화로 이종관 선생이 한잔 사겠다고 약속했으니 세계 한잔 마셔보기로 한다. **후기**



이 글을 쓴 조광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철학아카데미 대표이다. 한국현상학회 이사,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고 있다. 몸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철학, 매체철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는 《쉬르필로소피아: 인간을 넘어선 영화예술》, 《존재 이야기》가 있다.